

BIO ECONOMY BRIEF

April 2017. Issue 8

한국인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한국인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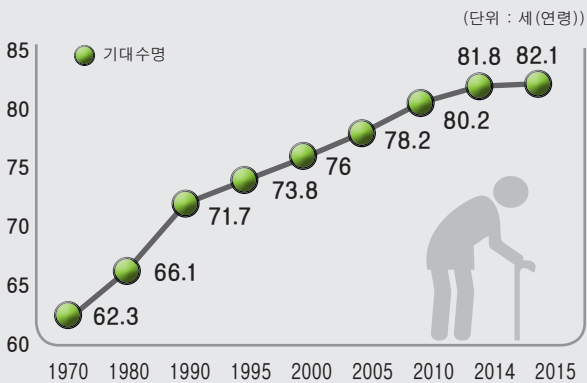
홍정은 연구원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기대수명¹⁾이 100세가 될 수 있는 시대는 언제일까? 최근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Imperial College) 보건대학 연구진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2030년 기대수명을 분석하였는데,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세계 최초로 90세를 넘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²⁾ 다시 말해, 약 10년 뒤 한국은 세계 장수국가로 손꼽히던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등을 제치고 세계 1위 장수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의 증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00년 76세(세계 32위), 2015년 82.1세(세계 11위)³⁾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그림1]). 2000년, 한국의 기대수명은 상위 국가들과 비교하여 약 5년이나 짧았지만, 불과 15년 만에 기대수명은 약 6년이 증가하여 현재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그림3]). 앞서 언급했던, 2030년의 기대수명 분석 결과에서는 한국의 2030년 남성의 기대수명은 84.1세, 여성은 90.8세로 각각 모두 1위를 하였으며, 남녀 통틀어 기대수명 90세를 넘는 유일한 나라로 나타났다([그림2]).

[그림1] 한국 인구의 기대수명 변화



출처 : 통계청, 한국바이오경제연구소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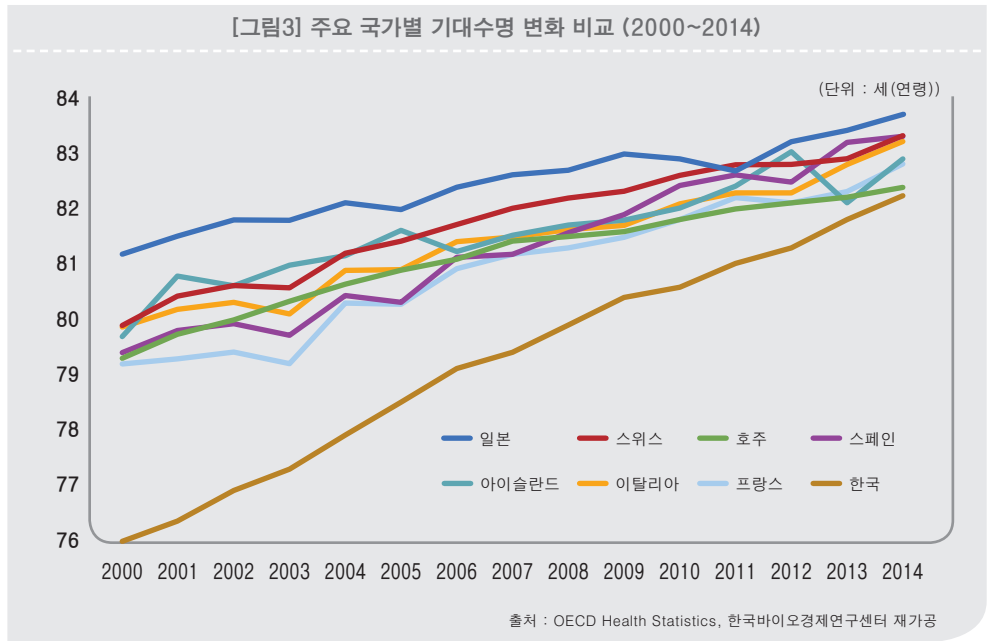
[그림2] 2030년 기대수명 국가 순위

| 여자 | | 남자 | |
|----|-------|----|-------|
| 순위 | 국가 | 순위 | 국가 |
| 1 | 한국 | 1 | 한국 |
| 2 | 프랑스 | 2 | 오스트리아 |
| 3 | 일본 | 3 | 스위스 |
| 4 | 스페인 | 4 | 캐나다 |
| 5 | 스위스 | 5 | 네덜란드 |
| 6 | 오스트리아 | 6 | 뉴질랜드 |
| 7 | 포르투갈 | 7 | 스페인 |
| 8 | 슬로베니아 | 8 | 아일랜드 |
| 9 | 이탈리아 | 9 | 노르웨이 |
| 10 | 캐나다 | 10 | 이탈리아 |

출처 : Imperial College, London/ WHO

1) 출생자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life expectancy at birth)
 2) 국제의학학술지 랜싯(the lancet) 에 실림, 2017. 4. 1
 3) 2015년 기준, 여자 기대수명 : 85.2세, 남자 기대수명 : 79세, 평균 : 82.1세 (출처 : 통계청, 2017. 1. 10)

[그림3] 주요 국가별 기대수명 변화 비교 (200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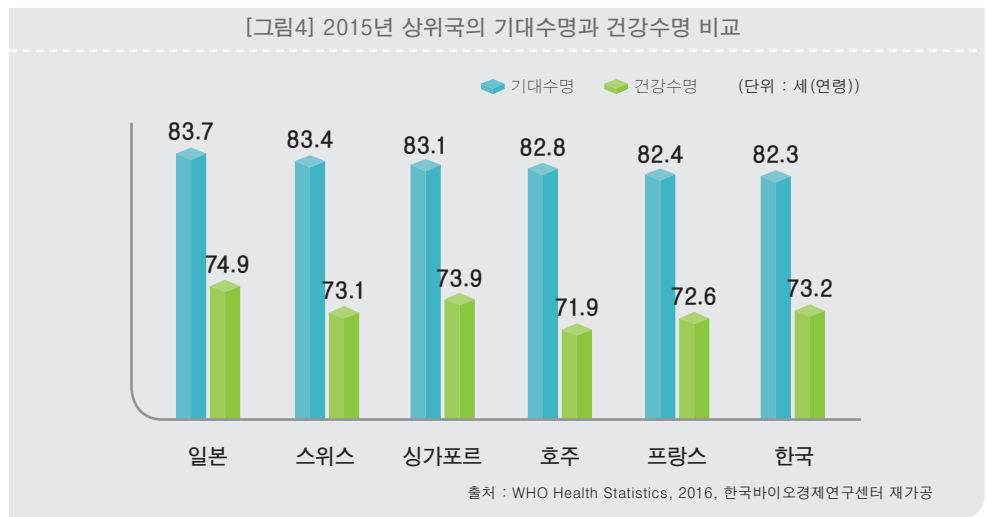


한국이 2030년 일본을 제치고 최장수국가가 될 수 있는 이유로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인은 비만율과 혈압이 낮은 편이며, 특히 한국 여성의 흡연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다른 이유로는, 한국의 높은 의료 시스템·기술과 의료시설의 접근성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이렇듯 한국 사회의 기대수명은 단시간 내에 길어졌으며, 머지않아 '100세 시대 실현'을 위하여 한국의 바이오헬스산업의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기대수명에 미치지 못하는 건강수명

인간의 '오래 살고 싶다'라는 염원에는 '건강하게'라는 내용이 내제되어 있을 것이다. 기대수명이 단순히 생존 연수를 말한다면, 건강하게 산 기간을 '건강수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2015년 기준, 73.2세로 2000년 대비 약 5년 증가하여 세계 3위로 높은 수준이지만 건강수명은 기대수명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다. 2015년 기대수명 상위 국가들의 건강수명은 기대수명보다 평균 9~10년 정도 짧은 것을 볼 수 있다([그림4]). 세계 국가들의 기대수명

[그림4] 2015년 상위국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비교



연장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 사회의 시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역시 10년 뒤, 초고령사회⁴⁾를 맞이할 예정이며, 이에 대비하여 건강, 일자리, 소득, 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의 건강한 초고령사회를 위해서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이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OECD 꼴찌 수준의 건강상태 인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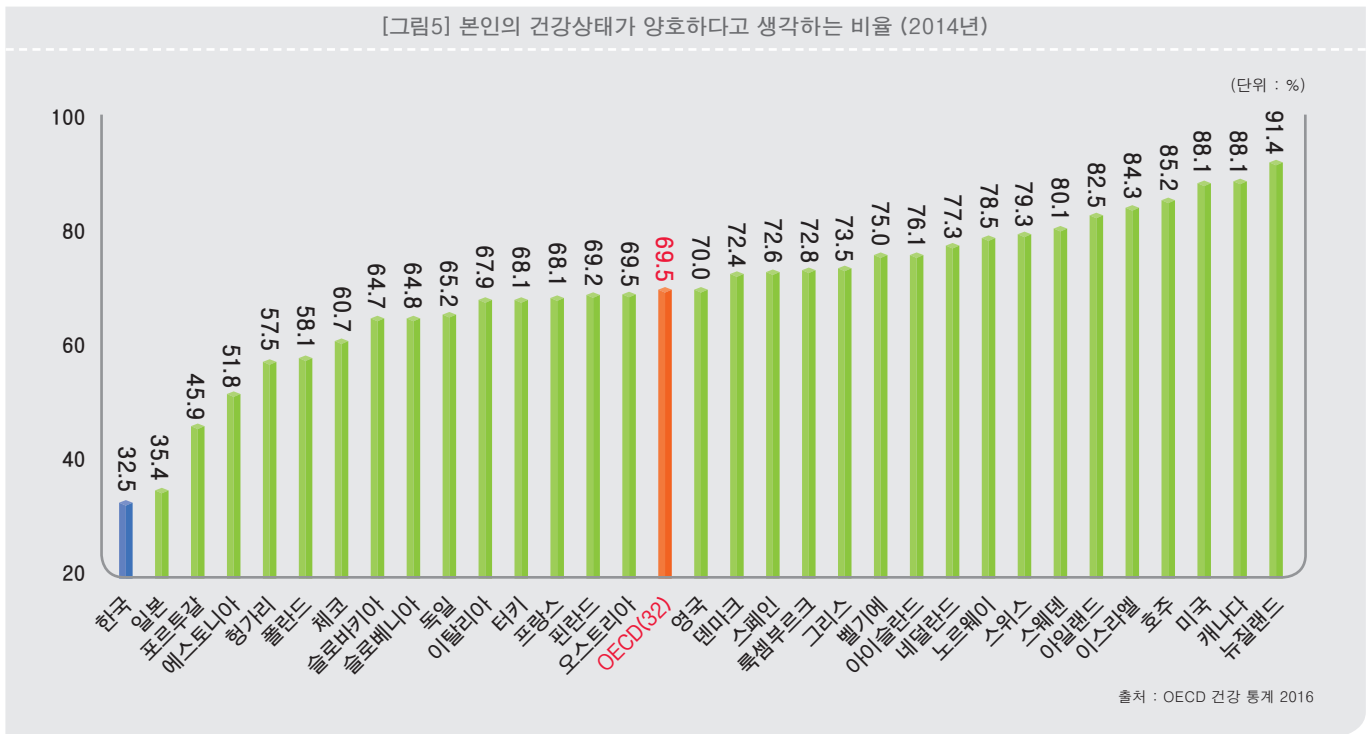
'OECD 건강 통계 2016'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상태의 주관적인 평가인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Self-perceived health status)' 항목에서 OECD국가 중 최하위 국가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빠르게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결과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좋음, 매우 좋음)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5%(2014년)였으며, OECD 회원국의 평균인 69.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그림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결과의 이유를, 해석하는 태도나 신념 및 국가 간 사회·문화적 인식차로 설명하였다. OECD는 매년 각 회원국으로부터 보건 부문 통계 지표를 제출 받아 작성하고 있으며, 항목에 따른 답변 척도가 회원국마다 조금씩 다르다. 실제로 답변 척도가 (매우 좋음- 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인 나라보다 (최상-매우 좋음- 좋음-보통-나쁨)인 나라에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우리나라는 '매우 좋음', ' 좋음' 보다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일본과 한국은 적극적인 표현을 잘 하지 않는 문화적 배경이 많이 작용하였다는 분석이다.

4)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며,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한국은 2015년 13.0%를 기록하였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출처 : 통계청)

[그림5]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2014년)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바이오헬스산업의 변화

10년 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구조 및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기대수명·건강수명이 증가하는 만큼 인구구조에서 노인 세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건강한 노인 세대 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일자리 창출, 주거 문제 등 고령화사회 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응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했던 한국인이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에 대한 결과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답변 척도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대수명이 높은 한국 대부분의 국민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바이오헬스산업이 주목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브리프 4호 <1인 가구 증가와 바이오헬스산업의 기회>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정신적·심리적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한적 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문제보다는 심리적 건강 상태 즉, 만성 피로나 심리적 행복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바이오헬스산업 내에서도, ICT 기술·산업과 융합하여 정신적·심리적 케어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분야 및 시장 개척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가까운 미래에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pril 2017. Issue 8

저 자 소개

홍정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연구원

전화 : 031-628-0027

e-mail : hjebio@koreabio.org

BIO ECONOMY BRIEF

발행 | 2017년 4월

발행인 | 유승준

발행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1층

www.koreabio.or.kr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KOREA BIO-ECONOMY RESEARCH CENTER

Innovating Data Into Strategy & Business



ISSN 2508-6812